

# ICN(국제간호협의회) CNR(대표자회의)

## 간호의 글로벌 영향력 높이는 데 주력

### WHO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추진 ... 각국 간호통계 제출 촉구

# '2020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는 간호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기회이다. 각국 정부가 간호사들을 지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Report)' 작성에 각국 정부가 참여하도록 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

국제간호협의회 대표자회의(ICN CNR)가 6월 25~27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표자회의(CNR: 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에는 ICN 이사진과 회원국 간호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자회의는 2년마다 열리며, ICN 현안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국 대표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왼쪽)과 김영경 제2부회장이 참석했다. 신경림 ICN 제3부회장(대한간호협회 국제·KICN 간호리더십센터위원장)이 임원으로서 대표자회의에서 활약했다.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보장은 충분히 잘 훈련된 간호사가 적재적소에서 일할 때 이룰 수 있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세계 간호사들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작성에 각국의 자료가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자들은 지역별로 모여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가졌다.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정확한 간호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회장은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사무총장과 함께 지난 2년간의 주요사업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ICN은 WH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간호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WHO 본부의 간호정책수석 자리를 부활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결과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가 2017년 10월 12일 임명됐다.

ICN은 2019년 1월 WHO 집행이사회에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간호의 역할 △불량 및 위조제품 예방 및 대응에 간호사 참여 △국가의 보건과제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인력은 간호사 △환자안전 최우선 등 4가지 의제를 강조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할 것을 권고했고,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며, 세계보건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ICN은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에 주력했다. WHO,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 이사회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진행된다. 이후 ICN으로 이관해 계속 이어 나간다.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의 목표는 간호의 영향력을 높이고 간호사의 리더십을 개발하며, 간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89개국에서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 출범식했다.

○...ICN은 글로벌 건강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에 적극 참석했다.



ICN 대표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왼쪽)과 김영경 제2부회장.



한국인으로 ICN 임원에 선출돼 활약하고 있는 신성래 ICN 제3부회장.



소속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삶을 담은 영상을 관람한 각국 대표자들이 기립박수로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을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가 세계간호학생대회에 파견한 학생 대표들(뒷줄)이 대표자회의에 앞서서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세계간호학생대회에 파견한 학생 대표들(뒷줄)이 대표자회의에 앞서서 참석했다.

이민자 및 난민의 건강, 고령화, 예방접종, 직장폭력 예방과 관리, 기후변화와 건강 등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항생제 내성 퇴치 협의, 의약품 및 백신 접종 국제 토론회, 간호사의 이동(이주) 워크숍,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연례총회 등에 참석했다.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2017~2019년 시리즈로 발표했다. 메인주제 아래 하위주제만 바꾸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간호사, 양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A Voice To Lead)' 메인주제 아래 2017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8년 '건강은 인권이다(Health is a Human Right)', 2019년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을 하위주제로 정했다.

○...ICN이 개발한 '변화를 위한 리더십(Leadership for Change)' 프로그램을 여러 나라에서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교육이 열렸고, 제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세계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주역으로 참가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CN의 비전 및 미션 아래 앞으로 5년간 추구할 4대 목표 및 24개 실천사항, 3가지 축 및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2019-2023)'을 발표했다.

○...간호사들을 응호하는 활동에 힘썼다. 총격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간호사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고, 한국 강원도에서 산발이 났을 때 대한간호협회에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간호정책, 간호교육, 인력부족 등의 이슈에 대해 지지 또는 항의하는 서신을 해당 국가의 정부에 보냈다.

○...ICN은 대한간호협회가 소속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보고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간호사의 삶을 담은 홍보영상이 대표자회의에서 상영됐으며,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ICN은 간호의 미래인 간호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학생과 신입간호사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8년 및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 간호학생 대표단을 파견했다. 앞으로 ICN 학생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표자회의에서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자회의와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 세션도 마련됐다.

한편 차기 대표자회의 및 간호학생대회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며, 2023년 개최되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결정됐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ICN '창립 120주년' 자랑스러운 역사

### 열정과 혁신, 헌신과 단합으로 이룬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



아네트 케네디 회장이 걸고 있는 목걸이는 'ICN 회장 목걸이'로 역대 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올해 ICN은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세계의 탁월한 간호사 리더들에 의해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것입니다. 우리가 강인하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이고, 단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은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아네트 회장은 2017년 5월 선출됐으며, 아일랜드 출신으로 유럽간호사연맹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비감염성질환에 관한 고위급위원회(WHO High-Level Commission on NCDs)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아네트 회장의 메시지이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ICN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국경을 초월해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비감염성질환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분쟁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간호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간호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힘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기동안 내세운 좌우명은 '함께하자(Together)'입니다. 이사회와 직원, 회원들 모두가 열정을 갖고 혁신하면서 헌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나라의 간호협회를 방문했고, 많은 간호사들을 만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수, 지진, 전쟁 등 지구촌의 위기와 재난 현장에서는 늘 간호사들이 최일선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우리는 세계의 간호사들을 돌보아야 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ICN은 회원들의 미래 요구를 충족시켜줄 새로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의 중요한 이슈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영향력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고위급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으로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가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간호사들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약속한대로 간호정책수석 자리를 복원시켰습니다. 또한 WHO는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ICN은 내년 4월 발표될 목표로 WHO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 준비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성 나이팅게일(Nursing Now) 캠페인입니다. ICN은 남성 나이팅게일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간호사들의 이미지와 위상을 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89개국에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ICN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셋째, 회원들 힘 북돋우기입니다. 세계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간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회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회원 중심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회원들의 요구와 우선과제를 지원하고, 회원들을 여러 분야에 동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간호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며, 간호사들의 웰빙을 증진시키고, 모든 정책에 건강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합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ICN 1899년 창립 ... 올해 120주년 맞아

### 한국, 현재 제3부회장 배출한 이사국



국제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는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1899년 창립됐다.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다. ICN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홈페이지 www.icn.ch

ICN 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CNR: Council of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Representatives)가 2년마다 개최되며,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다. 4년마다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선출한다.

세계 간호사들이 모이는 학술대회인 Congress와 Conference가 2년마다 교대로 열렸으며, 2017년부터는 명칭을 Congress로 통일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949년 ICN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다. 1989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gress), 2015년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Conference)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현재 한국은 신성래 ICN 제3부회장을 배출한 이사국이다.

이에 앞서 하영수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1977년 ICN 간호사업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모임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ICN 이사를 지냈고, 동양인 최초로 1989년 ICN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김순자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업전문위원이 ICN 이사로, 김의숙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ICN 이사로 선출돼 활동했다.

ICN 로고는 사람과 등불을 형상화한 것으로, 역동성과 유연성을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를 의미하며, 등불은 세계적으로 간호사와 간호를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밑받침, 등불, 불꽃, 지구본으로 구성됐다. 이는 통합, 힘(영향력), 전체성, 균형을 상징한다. 불투는 간호와 건강을 상징하며, 열로우어는 간호전문직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컬러다.

## 차기 대표자회의 및 학술대회 2021년 아부다비 ... 2023년 몬트리올

